

# 캄보디아, 출가자 ‘정치참여’ 논란



캄보디아 스님들이 출가자의 선거참여 기권을 촉구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평화행진.

“출가자가 선거에 기권해야 하는가, 투표해야 하는가?”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불교국가 캄보디아. 최근 들어 출가자들의 정치참여 문제가 불교계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쟁의 촉발은 캄보디아 의회 대변인이자 캄보디아 국민당(C.P.P) 당수인 체아 심(Chea Sim) 의원의 “출가자의 선거 기권을 반대한다”는 발표.

아시아뉴스(AsiaNews) 지는 11월 30일 자 보도에서 “불교 수행자들의 선거 기권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C.P.P) 체아 심 당수가 다음 번 지방자

치 선거와 국가 선거에서 종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유지된다”며 “이번 상황에도 몇몇 불교지도자들이 (출가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 ‘유혹’으로서 제기한 견해에 (출가자 선거 참여가)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는 특히 “2007년 지방자치 선거와 2008년 국가 선거에서 불교도의 종교적·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최대가 될 것”이란 체아 심 국민당 당수의 말을 인용, 향후 논쟁의 향방에 대해서 언급했다.

체아 심 캄보디아 국민당 당수는 올해 초 500여 명의 원로 출가자가 참가한 ‘15차 캄보디아 불교출가자회의

(Congress of Cambodian Buddhist Monks)’에서 “출가자에게는 완전한 투표권이 있다”며 “도덕성을 가르치고 사회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출가자의 사회적 위치를 동시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불교계의 입장은 다르다. “출가자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당 당수의 이번 발표는 불교계와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03년 국가 선거 전부터 격발된 이슈인 ‘출가자의 정치 참여’ 논쟁에 불을 다시 붙이게 했다. 당시 캄보디아 불교도 종정 텡봉(Tep Vong) 스님과 마하니카야(Mahanikeya) 불교 학교의 지도자는 출가자들이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이 같은 논쟁에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관심과 격정은 다른 곳이 있다. 프랑스 식민지 통치 시대에 저항하던 출가자들의 정치적 역할을 기억하는 캄보디아인들은 출가자들이 선거 참여 과정에서 ‘파괴(破壞)’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령 출가자들이 길거리에서 운집한 군중 가운데에서 투표를 하는 동안, 여자의 몸을 축복적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금기를 깨거나 유혹에 흔들리는 위험을 지적했다.

## 국민당 당수 “선거 기권 반대” 의사 밝혀 2003년 이후 논쟁 재촉발... 불교계 침묵

한편, 캄보디아 국민당의 후원자로 알려진 텡봉 종정 스님은 이번 논쟁에서도 ‘노 코멘트(No Comment)’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텡봉 스님은 출가자의 정치적 역할 관련 이슈와 출가자의 2007년 4월 지방자치 선거와 2008년 국가 선거에 직접적인 참여 등에 대해 논평을 철저히 삼가 해왔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 1,300만 여명 가운데, 불자가 95%가 넘는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국가. 현재 출가자는 총 57,500명으로, 전 국토에 4,135개의 탑이 산재해 있다.

한편, 캄보디아 국민당의 후원자로 알려진 텡봉 종정 스님은 이번 논쟁에서도 ‘노 코멘트(No Comment)’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텡봉 스님은 출가자의 정치적 역할 관련 이슈와 출가자의 2007년 4월 지방자치 선거와 2008년 국가 선거에 직접적인 참여 등에 대해 논평을 철저히 삼가 해왔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 1,300만 여명 가운데, 불자가 95%가 넘는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국가. 현재 출가자는 총 57,500명으로, 전 국토에 4,135개의 탑이 산재해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 전법과 미디어의 역할

인류 역사상 슬하에 많은 종교가 탄생했지만 대부분은 발상지에서 짧은 기간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라졌다. 시공(時空)을 초월해 이른바 ‘보편종교’로 발전한 것은 불교를 포함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다.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종교들이 왜 그리 수명이 짧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침의 내용이 부실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창시자의 깨달음이나 종교적 자각, 가르침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져간 종교 사상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터넷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붓다넷(www.buddhanet.net)도 수준 높은 불교 정보를 전해준다. 타이완 불광산사에서 운영하는 위성TV는 이미 전 세계를 시청권으로 하고 있고 최근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 TV 방송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불교홍법회(The Buddhist Missionary Society)에서 설립·운영하는 부디스트채널(www.buddhistchannel.tv)은 현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불교계 신문의 국제면에 등장하는 해외불교 관련 소식은 대개 이곳에서 얻는 정보이다. 그러나 이

곳을 가리켜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제자나 신도들을 한 자리에 모 두 모아놓고 육성으로 ‘가르침’을 전해야 했다. 그 가르침을 암송하여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 갔고, 나뭇잎이나 나무 조각에 새겨 후세에 전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었다.

이른바 패엽경(貝葉經)이나 죽간(竹簡)으로 남아있는 논어·노자 등은 다 이런 과정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기 종교나 사상의 가르침을 당시 최고의 미디어 수단을 활용해 시공을 초월해 전한 것은 살아남았다.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한국 불교가 이른바 왜색불교를 청산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발전한 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법 전파를 위해 고생한 불교계 언론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불교계 신문사가 폐간되거나, 대주주의 경영 포기나 어려움을 겪었고 양대 방송사도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우리 불교계 언론의 상황은 다른 종교계의 미디어 선교 전략과 현실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많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일대일로 법답을 나누시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심과 종교적 열정이 특별한 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나무 판에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을 들여 경전 내용을 새기고 먹물 갈아 고운 한지에 찍어서 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차원의 신심이기는 해도, 이 시대의 전법과 전도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최신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는 전법이 불가능하다.

### 불교언론의 열악한 현실

### 타종교와 비교조차 힘들어

### ‘현대불교’ 폐간 지켜만 볼건가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일대일로 법답을 나누시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심과 종교적 열정이 특별한 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나무 판에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을 들여 경전 내용을 새기고 먹물 갈아 고운 한지에 찍어서 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차원의 신심이기는 해도, 이 시대의 전법과 전도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최신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는 전법이 불가능하다.

미국 내에는 이미 각 불교 전통에 따른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소개하는 인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한국 불교가 이른바 왜색불교를 청산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발전한 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법 전파를 위해 고생한 불교계 언론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불교계 신문사가 폐간되거나, 대주주의 경영 포기나 어려움을 겪었고 양대 방송사도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우리 불교계 언론의 상황은 다른 종교계의 미디어 선교 전략과 현실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많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일대일로 법답을 나누시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심과 종교적 열정이 특별한 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나무 판에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을 들여 경전 내용을 새기고 먹물 갈아 고운 한지에 찍어서 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차원의 신심이기는 해도, 이 시대의 전법과 전도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최신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는 전법이 불가능하다.

미국 내에는 이미 각 불교 전통에 따른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소개하는 인

## 미국 교도소에 ‘불교바람’

### 교회 단체 활동 왕성...수감자 개종 증가

‘3초에 한번씩 감도사건, 1분에 강간·살인사건 발생, 총기 사고는 집계조차 불가능...’ 범죄발생 빈도수 세계 1위인 미국. 이 같은 불명예를 짊어준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진원지는 교도소. 이곳에 불교 교정인이 증가하는가 하면, 수감자의 불교 개종 사례가 늘고 있는 등 교도소에 ‘불교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 인터넷 언론 루테이스닷컴(www.todays.com)은 최근 보도에서 ‘뉴욕,

버클리, 미주리, 콜로라도 등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서 불교 열풍이 일고 있다’며 이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기사를 썼다.

루테이스닷컴은 대부분 과거부터 요가나 명상 등의 수행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수행자들과 ‘불교평화주의회(Buddhist Peace Fellowship, B.P.F.)’, ‘국립불자교정승단(the National Buddhist Prison Sangha)’과 같은 불교 단체들의 왕성한 교도소 교회활동을 주목했다.

이들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요가와 명상

수행, 불서 보급운동, 경전읽기, 잡지 제작, 평화를 만드는 수감자 모임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루테이스닷컴은 또 현재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도소에는 불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수감자들의 모임이 결성돼 활발한 실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11월 28일자로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리키 마틴이 헐리우드의 매력남 리처드 기어처럼 독실한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철학이 다른 종교를 폄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때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키 마틴은 “불교 신도로 개종할 의사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든지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듯이, 종교도 그렇다는 것. 좋은 나쁜 믿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리키 마틴은 말했다.



김철우 기자

## 세계적 가수 리키 마틴 불교철학에 매료

세계적인 라틴 가수 리키 마틴(Ricky Martin) 사진이 불교철학에 푹 빠졌다. 미국 연예정보 사이트 TMZ닷컴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리키 마틴이 불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11월 28일자로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리키 마틴이 헐리우드의 매력남 리처드 기어처럼 독실한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철학이 다른 종교를 폄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때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키 마틴은 “불교 신도로 개종할 의사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든지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듯이, 종교도 그렇다는 것. 좋은 나쁜 믿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리키 마틴은 말했다.

김철우 기자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과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엔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유림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 제 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2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소동령 17km
12월10일[일]	소동령	-	건봉사 18km
12월11일[월]	건봉사	-	죽 왕 21km
12월12일[화]	죽 왕	-	속 초 20km
12월13일[수]	속 초	낙산사	홍련암 15km

#### 제 3주 12월 14일 - 12월 20일 [13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14일[목]	낙산사	-	하조대 22km
12월 15일[금]	하조대	-	주문진 20km
12월 16일[토]	주문진	-	강 룡 20km
12월 17일[일]	강 룡	-	정동진 17km
12월 18일[월]	정동진	-	망상역 2.1km
12월 19일[화]	망 상	-	동해항 20km
12월20일[수]	동해항	-	근 덕 19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까지 게재 드립니다.